

우리를 사랑하셔서

God Loved Us, So He Sent His Son (187)

위엄 있게 $\text{♩} = 50-56$

1. 우 리 를 사 랑 하 셔 서 아 들 을 세 상
 2. 하 나 님 아 들 이 지 사 만 인 간 을 으 세 태
 3. 날 속 죄 해 준 그 사 랑 거 러 한 사 랑

보 어 내 어 하 늘 로 가 는 유 일 한
 크 나 시 며 무 죄 한 그 의 피 흘린
 크 나 시 며 무 죄 한 그 의 피 흘린

길 러 몸 소 걸 어 보 이 썼 — 네
 니 내 법 법 을 온 전 케 하 썼 — 네
 니 내 법 법 을 온 전 케 하 썼 — 네

4. 주 바라는 내 언행
 주 뜻을 따라가도록
 성령의 지시 따라서
 배우게 하여 주소서

5. 나 위해 흘린 피와 살
 상징하는 이 성찬을
 들 때마다 나의 주를
 기억하게 하옵소서

작사(영어): Edward P. Kimball(1882~1937)

작곡: Alexander Schreiner(1901~1987). © 1948 IRI

요한복음 3:16~17

교리와 성약 34:3